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9. 12.)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품목	유해물질명	안전기준	시험결과	기준초과 제품 수	비고
전동완구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5.12~7.93%	3개	-프탈레이트+납 중복 검출
	납	100mg/kg 이하	701.0~1070.7mg/kg		
물놀이 용품 (10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19.35~26.88%	2개	-프탈레이트 단독 검출 1개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검출 1개
	카드뮴	75mg/kg 이하	188.5mg/kg		
액체완구 (10개)	MIT, CMIT	사용 금지	검출	4개	- CMIT+MIT 중복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7.91%	1개	-프탈레이트+납 중복 검출
	납	100mg/kg 이하	967.5mg/kg		

-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